

제 5장 상업

제 1절 서론

고성의 상업 현황은 주로 시장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고성의 특산물인 곡물, 소금, 그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광목이 있고, 아울러 통영이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고성에도 역시 부수적인 시장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정기시장은 1600년대 이후에 발달하지만, 이후 1800년대 중반에 이르도록 그 숫자는 정체상태에 머무른다. 그러나 시장은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인 화폐의 발달과 상품화의 경향으로 서서히 발달한다. 특히 1700년대에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91년(정조 15년)에는 금난전권의 횡포(私商인의 출현을 막았다. 시전의 독점권)가 심해지자,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생선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자유거래를 허용.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방에서도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재래시장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場門이 전라도에 등장한다(고성군, 1995, [고성군지]: 754).

일제시기에 근대적인 시장의 개설로 말미암아, 시장의 상인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발달하여 상설시장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 2절 근대이전

제 1항 시장 개황

조선시대의 상업은 주로 시장을 무대로 하여 형성되었다. 당시 향시는 상설시장이 아니었고, 鄕市로서 1월에 6場으로 한 지방에서 매월 6회씩 개시되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조선왕조시기의 시장의 개수는 16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1천여 개의 향시로 추산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場市가 활성화되어, 경상도에 268-278개 정도가 있었다. “1770년 현재 전국의 장시 총수는 1,064개로서 한 군현 당 평균 3-4기이다. 북부에 비해 장시밀도가 훨씬 높은 남부 농촌사회에서는 대체로 반경 6-7km와 인구 1.5만 명의 범위에서 하나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이헌창, 1999: 113).

1830년 이후에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다. 전국의 장시총수는 1770년에서 1911년까지

약간의 증가를 보일 뿐이지만, 그간의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충청, 전라, 경상외 3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장시의 감소가 가장 먼저 뚜렷하게 관찰되는 곳은 전라도이다(이영훈과 박이택, 2004, “농촌미곡시장과 전국적 시장통합, 1713-1937”, 이영훈 편, [수량 경제사료 다시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257). 순조시기 (1800년대 초기)에는 경상도에 276여개([萬機要覽])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장시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1830년 이후부터이다. 이 두 도에서 1911년의 회복된 장시 수는 여전히 1770년에 미치지 못 한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58).

경상도에서 지방간 시장활성 정도의 차이는 1883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58). 그 이유는 전라도 연안부의 주요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전라도 상인이 주축이 된 경상도와의 해상교역이 곧바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60). 따라서 고성군은 19세기 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19세기 중반이후에 내륙지방의 장시에 비해 정체하기 시작한다. “토지생산성의 장기적 하락과 국가적 재분배체제의 해체에 기인한 공급애로로의 누적은 드디어 1855년을 넘기면서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해강부와 내륙부의 전 범위에 걸쳐 성립한 전국 수준의 시장 통합은 거의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64).

고성군은 상대적으로 조선중기이후에 시장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적되었다. [嶺湖南沿海形便圖]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서, “고성은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소재한 곳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높은 지역임과 동시에 해상의 수세 등의 권한을 장악하였으므로, 상품 유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는 통영이 고성현에 속하여, 통영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장시는 시전과 달리 별다른 시설이 없고, 상인과 인근 주민들이 모여 생활필수품을 교역하던 곳이며, 가축 시장이 대개 시장 열리는 곳에서 열렸다.

고성현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우선 바닷가 지역으로 항구가 많았고, 또한 곡물생산과 어물생산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우선 생산물 측면에서 꼽을 수 있고, 통영에 대규모의 통제영 병력이 거주하고, 외공장이 발달하여 시장 수요가 많았고,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가능하여,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어업, 상업, 방어를 위한 항구가 발달하여 있었다. “강운의 경우 느리고 불규칙하다는 무시 못 할 단점도 있지만,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운의 경제성은 육운의 적어도 4 - 5배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31). “1845년 경상도 남해군에 소재한 龍洞宮庄土의 미곡 232석이 해리 약 400리(720Km)를 항해하여 서울 본궁으로 수송될 때의 운임은 그 가운데 35석, 15%에 불과하였다. 1863년이 되면 운임은 보다 낮은 12%의 수준이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31). 고성은 해운의 편리를 누린 곳이다. “고성은 18세기 증엽 지도선의 수가 648척이나 되어, 알려진 범위에서 전국 2위이다 (최완기, 1989: 187-90).” 그러나 해운의 잇점은 19세기에 상업세의 부과로 사라진다. “바다와 강을 항행하는 상인들에 대한 상업세가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19세기부터라고 지적되고 있다” (須川英德, 1994).

고성을 소개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소개된 역과 포구를 인용한다. “역이 3이니, 송도(松道)·배둔(背屯)·춘원(春原)이다”. 또한 포구는 “가배량(加背梁)은 현(縣) 남쪽 17리에 있고, 【수군 도만호(水軍都萬戶)가 수여한다. 지금은 거제(巨濟) 옥포(玉浦)로 옮겼다.】 당포(唐浦)는 현 남쪽 47리에 있으며, 【번계 만호(樊溪萬戶)의 병선(兵船)이 여기로 옮겼다. 번계는 본디 현 서쪽 33리에 있었다.】 사랑(蛇梁)은 현 남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70리이다. 【구량량 만호(仇良梁萬戶)의 병선이 여기로 옮겼다. 구량량은 본디 진주(晉州) 임내(任內)인 각산향(角山鄉)에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고성현(固城縣)편, 【영인본】 5책 651면, 【태백산사고본】 54책 150권 31장 B면)

위에 언급된 포구는 3개이지만, 1700년 후반대나, 1900년전후의 기록은 훨씬 더 많다. [嶺湖南沿海形便圖]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는 9개를 기록하고 있다. “고성은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소재한 곳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높은 지역임과 동시에 해상의 수세 등의 권한을 장악하였으므로, 상품 유통의 오충지이기도 하였다. 고성에는 積珍(珍)浦 (통영 광도면 적덕리, 수백척), 竹林浦(거제시 거제면 죽림포, 수백척), 頭龍浦(통영시 문화동, 수백척), 三千浦(수십척), 唐浦(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수십척), 掘項浦¹⁾(삼천포 대방동, 1척), 羽浦(? , 수백척), 竹島浦(통영시 한산면의 섬, 100척), 舊所非浦(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의 소을비포성지, 수십척)”. 또한 1900년 전후의 기록에는 24

1) 사천시에는 용현면에 선진(船津)의 전신인 통양창이 있었고 구해창, 가산창이 있었으며, 삼천포지역에는 통양창의 외창인 통창(현 동금동 바닷가)이 있었고, 조선 순조때 창선도와 적량첩사와의 군사연락을 위해 대방동에 축조한 대방굴항(大芳掘項)이 있었다. 이 항에는 군사 300명과 전함 2척을 상주시킨 병선의 정박지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지금의 항만역할을 담당한 곳이었다.

개를 기록하고 있다. “南村浦²⁾, 三千浦, 加背梁³⁾, 安營浦, 愁月浦(고성현 남쪽 30리 지점), 陽知浦(고성현 남쪽 30리지점), 元春浦(춘원포 현 동쪽 20리), 雙峯浦(고성현 서쪽 20리 지점), 水火浦, 魚禮鄉浦(현 관아 서쪽 30리 지점), 池浦(통영 산양읍 곤리도 목개), 馬所浦(현 서쪽 70리지점), 惠叱伊浦(현의 서쪽 30리 지점), 佐申串, 乙上串, 住嶽串, 海平串⁴⁾, 召所浦(마암면 두호, 현북 쪽 10리), 加次浦(?가화포, 현북쪽 20리 지점), 唐項浦, 資火浦(현북쪽 35리 지점)” (조선왕조, 1903-1908, [增補文獻備考] 권 35, 輿地考 關防 海防). 따라서 고성의 포구는 조선조를 통틀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내에서도 171개중 고성현이 가장 많은 24개를 기록하여, 거제가 18개, 남해가 17개를 능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농산물과 동시에 어물, 그리고 통영의 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물까지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하였다. 또한 동해안이나 낙동강 연안의 시장과 전라도 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시장을 중개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초기에 고성현에 대해 소개한 것을 따르면,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서로 반반씩이며, 기후는 따뜻하다. 간전(墾田)이 3천 9백 41결이다. 【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는 벼·조·콩·보리”. 고성의 경우, 효율적인 市場機構의 미발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가운데, 다른 한편 미곡의 상품화율로 이야기되는 미곡시장의 크기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제약이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50).

“【현(縣) 남쪽 주악곶(住岳串)의 임해암산(臨海岩山)에서 나는데, 구워서 만든다. 품질이 좋다.】 염소(鹽所)가 2이니, 모두 현 북쪽에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고성현(固城縣)편, 【영인본】 5책 651면, 【태백산사고본】 54책 150권 31장 B면). 소금은 상대적으로

2) 1725, 구상덕(月峯 具尙德· 1706~1761)이 쓴 일기 『승충명록(勝聰明錄)』, “7월 27일(정사) 하늘은 맑고 날씨는 더웠다. 남촌포(南村浦)에서 모여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회(膾)와 탕(湯)으로 먹었다.”

3) 가배량 혹은 가배량수(加背梁戍)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가배량은 (고성) 현 남쪽 17리에 있고,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수어한다. 지금은 거제 옥포로 옮겼다.”(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2011. 12.,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남도 거제의 동쪽 끝 동부면 가배리에 있는 만이다. 동망산 줄기가 바다쪽으로 뻗어내려 가배량 취곳을 형성하고 있다. 가배만에는 가배항이, 그 남쪽에는 울포항이 있으며 두 개 만의 형태가 비슷하여 두 항을 모두 오아포(烏兒浦)라고 부른다. 문헌에는 가배만보다 주로 가배량 및 가배량진이 나타난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은 가배량에 삼도수군 통제영을 설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602년(선조 35) 고성현(固城縣) 남쪽 춘원포로 옮겨 갔던 가배량구진(加背梁舊鎭)은 이후 다시 옥포(玉浦)로 되돌아 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등산(登山)·남망(南望) 등 가배량(加背梁)의 두 곳에 봉수가 있다는 기록도 있다. 가배량성(加背梁城)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으며 『해동지도』에도 가배량성과 울포가 나란히 묘사되고 있다.(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2011. 12., 국토지리정보원)

4) 조선시대 군사용 말을 기르던 곳이라고 기록(왕조실록)

으로 고성의 소금이 단단하고 쉽게 녹지 않아 보관이 용이하여, 낙동강 상류지방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김해 소금이 쉽게 녹아 운송중 보관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고성 소금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조선후기에 고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교역활동을 기록한 것에 따르면, 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유통은 함경도 함흥 지역에서 전라도 흥양까지 범위가 매우 넓었다. 동해안의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어물과 고성의 곡물이 교환되었다. 전라도 흥양과는 미곡(통영)과 소금(흥양)이 교환되고 있었다 (고동환, 1997,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70-171).

[표 1] 고성지역의 교역 기록

연도	교역지역	판매한 상품	구입한 상품
1686년	흥양	租(田稅) 30석	소금 82석
1694년	거제 옥포		雲魚(은어?)
1763년	함흥	미곡	
1776년	흥원		
1811년	장기		
1812년	강원도		

출처: 고동환, 1997,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통영에 관한 기록에서도 고성이 항상 등장한다. 즉 “1865년 통영지도 (규장각 소장)에는 장배(場船, 장사배, 行商船)이 4척이 정박하고 있다. 장배는 고성, 거제, 창원, 하동, 곤양 (현재 사천시 곤양면) 김해 등 모든 읍에 있었다. 통영인이 행상선을 따라 그 읍에서 생산된 물자와 거래하는데 5일 간격으로 시장을 열었다. 통영시장은 도매업도 겸한 지방중심시장이었고, 1895년에 통제영이 폐영되고 쇠락하였다” (萬機要覽, 1808, 중앙정부의 재정참고서). 따라서 고성은 통영을 중심으로 한 시장교환체제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성에 시장 경제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호수는 5백 30 단(單) 1호, 인구가 2천 8백 85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30명, 영진군(營鎭軍)이 90명, 선군(船軍)이 3백 27명” ([세종실록 지리지] 고성현(固城縣)편, 【영인본】 5책 651면, 【태백산사고본】 54책 150권 31장 B면)이었다.

제 2항 미곡시장

고성(1726-61)과 전라도 영암(1744-1875)을 통합한 미가의 장기시계열로부터 개항 직전까지 미가의 단기변동 양상, 네 차례의 순환, 그리고 18세기에는 완만한, 19세기에는 보다 급한 상승의 장기추세를 확인하였다(전성호, 1998,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25-300에서 재인용). 1640년대 이후 조선사회의 경제는 18세기 후반까지 장기적인 확장기에 있었다. 쌀은 이 장지에서 가장 널리 교역된 상품이었다. 전국의 장시 80%에서, 곧 쌀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은 북부의 일부 지방을 제외한 모든 장지에서 쌀이 거래되었다(이영훈과 박이택, 2004: 247).

1738-65년에 바다와 강으로 연결된 해강부 간에 미가의 공동성이 높았다. 영암(바닷가)-고성(바닷가)은 0.988, 고성(바닷가)-상주(낙동강변)는 0.916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고성-경주(내륙지역)는 0.630으로 낮았다. 해강부 교역은 전라도 商船들이 주도하였다. 18세기 중반의 海江部 영암-고성-상주 간에 성립한 미가의 높은 공동성은 이 같은 미곡시장의 발전적 양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 생산된 쌀이 안동을 거쳐, 낙동강의 長江船과 남해의 解船을 이용하여 멀리 고성까지 운송하여 판매하고, 그곳의 소금 250석을 구입하였다. 당시 그가 (1683년 경상도 북부의 영주로 은퇴한 중앙의 고급관료 출신인 이聘(담)命)가 운송과 판매를 담당한 奴(종)에게 내린 牌旨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인 김해의 소금은 수분이 많아 녹기가 쉬운 반면, 고성의 소금은 단단하여 양질의 것이었다(이담명 日錄). 이처럼 고성은 소금의 명산지였다. 반면에 고성에는 쌀이 부족하였다(이영훈과 박이택, 2004: 247).

“1807년 총생산과 환곡분급량을 합한 미곡의 연간 총공급에서 국가가 수취한 조세와 회수한 환곡이 차지했던 비중은 대략 28%정도로 계산되고 있다(이영훈, 1996). 그러나, 19세기 중반이후 국가적 재분배체계가 허물어지면서 미곡시장 역시, 현저히 분열하고 말았음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18세기 중반 가격의 높은 공동성을 보인 영암-고성-성주의 시장관계에서 영암과 상주가 19세기 들어서는 고성에 미곡을 공급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영훈과 박이택, 2004: 251). 달리 말하여 고성의 미곡시장에서 공급곡선을 충분히 右下向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미곡 공급에는 제약이 있었다. “고성의 쌀 값은 영암, 상주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이었다”. 영암-고성간의 운임이 10%정도라면, 한껏 잡아도 15%를 넘기는 힘들었다. 통합된 시장에서 고성의 쌀 값이 높

이 형성된 것은 영암과 상주 지역의 쌀 공급량의 제약때문이었다. “경상 남해의 米價가 전라 남해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관찰한 대로, 경상도 고성의 미가는 전라도 영암에 비해 36%나 높은 수준이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49).

“개항을 맞아 세계자본주의와 접하게 되는 기간에 市場分裂이 있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45). 1910-12년간 최초의 지방별 농업통계에 의하면, 고성의 단보당 쌀의 생산량은 0.93석으로(180리터)서, 경상도 전체의 평균 1.23석의 3/4에 불과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 1911, 1912). 당시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지만, 고성에서 수출되는 쌀은 없었다 ([조선총독부관보], 555호, 1913년 6월 9일). 미곡시장의 통합동향은 20세기 초반부터 다시 회복된다. “1910년대 전반에 0.08을 전후한 변동계수는 1차대전 후의 恐慌, 1927-31년의 금융공황 및 농업공황 등의 충격을 받아 잠시 상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30년대 중반에는 0.02-0.04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69-270).

제 3항 특산물

고성현의 조선초기 토공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토공(土貢)은 꿀·밀[黃蠟]·표고버섯·송이버섯·작설다(雀舌茶)·모래무지·건합(乾蛤)·대구·문어·생포(生鮑)·도음어(都音魚)·미역·우무[牛毛]·세모(細毛)·어교(魚膠)·왕대[簞]·지초·종이·칠·사슴가죽·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산달피(山獺皮)이며, 약재(藥材)는 맥문동(麥門冬)·방풍(防風)이요, 토산(土產)은 녹반(碌礮)이다”.(세종실록 지리지)

[표 2] 고성현의 특산물 변화

시기	특산물
조선 초기	綠합, 대구어, 복, 해삼, 石花(굴), 청어, 문어, 전어, 홍합, 먹을 수 있는 풀 적, 竹
조선 중기	녹 ..., 죽, 鹿茸녹용, 石榴, 柚(유자), 왜楮(저, 닥나무), 香蕈(버섯), 柿(감나무), 松蕈(버섯), 海物
조선 후기	大口어, 生鰓, 海蔘, 紅蛤, 石花, 靑魚, 文魚, 箭(화살대 전)魚, 繡漁(수어?), 石魚, 烏賊魚, 絡(명주 낙)蹄(올무 제) = 낙지, 최 귀?

조선 초기 자료 :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정리한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 101

조선중기 자료 : 이중환, [택리지], 徐明膺, [攷(상고할 고)事新書], 서유거 [임원16지]를 정리한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131

조선 후기 자료 : [興(수레 여)載撮要]를 정리한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170쪽

제 4항 객주와 여각 (邸家)

객주의 등장은 고성지방에서는 18세기 말로 추정된다. “주요 포구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5-10%의 중개료를 수취한 客主라는 중간상인이 남부지방에 대두하는 곳은, 현재까지 알려진 한에서는 18세기 말부터이다” (이병천, 1983). 객주는 주로 보부상을 대상으로 화물의 도산매, 호물보관의 창고업, 위탁판매업, 화물의 운송업,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금융업 등을 겸하는 상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客主 (客商主人)은 지방에서 來集하는 객상을 위하여 居中周旋 물품 매매를 성립시키는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서울의 한강과 지방의 주요 포구에서 성립한 客主라는 일종의 중간도매상인들의 영업권은 점차 서울의 왕족이나 고급관료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이병천, 1983). 중앙정부의 각급기관과 왕실의 재정기관인 宮房이 재정수입을 확충하기위해 포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무거운 상업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부터이다 (須川英德, 1994: 2장). 상업세의 징수와 상납은 포구의 객주들이 담당하였다. 객주들은 점차 권력에 기생하는 징세청부업자로 바뀌어 갔다 (이영훈과 박이택, 2004: 260). 객주들의 무거운 상업세 징수는 오히려 장시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旅閣 (지방도시에서 여관업을 겸하면서 관헌과 권세가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들의 거래지방에서 오는 고객을 반강제적으로 숙박시키고, 규정된 수수료를 받았던 상인조직)은 객주보다 규모가 컸다. 대부분 여각은 연안 각 포에 존재하며, 대개 큰 창고를 보유하고서 곡물, 어염, 해패류 등의 위탁판매, 또는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르 가리키며, 船客主가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성에도 선객주가 존재하고, 바닷위의 시장이 발달했다면, 선상주가 존재했을 것이고, 여각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통영 시장에는 海蔘 道價(都賈장수, 도고 도매상, 해삼 도매상)이 8곳이 있었다. 이들이 말하자면, 선객주일 가능성은 높다. 이들은 거제, 고성, 남해를 근거지로 하는 나무 야채상인들과 오랫동안 교역했다고 한다 (통영지, 규장각

도서 12186). 그러나 해삼도고를 유푼각전으로 해석하여, 조정의 허가, 상품독점권을 갖고 있다 (유원동, 1990,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현황”, 조기준 외,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입문]: 77-122)고 해석하기도 한다. 유푼 각전이란 정부의 허가로 독점적인 매매권한을 가진 상인으로서, 포전(베를 파는 가게), 면포전 (무명을 파는 가게), 床塵(잡화가게), 연초전(담배가게), 魚物塵, 縮塵(비단전), 紙塵 등을 가리킨다.

제 5항 행상인 보부상

보부상이란 붓짐장사(보상), 등짐장사(부상)을 합친 말이다. 보부상은 상업 집산 또는 직접 생산자에게 구입한 일용 잡화물을 판매하되, 보상과 부상은 취급상품이 다르고, 일종의 행상조합 (peddlers guild)를 형성하였다. 보상(붓짐장사)은 보포(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주로 정교하고 비교적 高價인 잡화를, 시장에서나 혹은 촌가의 마루에 보포를 끌러 퍼놓고 판매하였다. 負商(등짐장사)은 조잡한 일용품인 5條물건(魚, 鹽, 土器, 木器, 水鐵器)을 지게에 얹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보부상은 전국 또는 지방간의 장시를 연결하여 보다 상품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地方鄉市 또는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순력행상하는 자였다. 이들이 장사하는 것은 상인 전권을 가진 도매상의 유푼각전에 대비되어, 無分 各塵으로 불리웠다. 무푼각전은 채소전, 毛塵(과물전, 과일을 파는 가게), 鹽塵, 雜鐵塵(잡다한 쇠붙이를 파는 가게), 貫物塵 (혼인이나 장사 때 쓰이는 물건을 세를 받고 빌려주는 가게)을 가리킨다. 전국 각지의 향시인 定期市場의 상권은 裸負商들이 독점함으로써 일반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로막았다. 1910년 이후 부상과 보상조직을 말살되었다. 이러한 보부상은 1960년대까지는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기능을 자동차를 활용하여 바뀌고 있다.

제 6항 공인자본(貢人資本)

대동법실시이후, 육의전과 더불어 독점적으로 관부의 수요품을 조달하게 된 대규모 상업 자본이 공인 자본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자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중 일부는 지방의 공물을 납품하므로, 지방의 자본이 진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貢契人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기적인 공물 상납을 담당하였고, 元貢 (各貢)은 宣惠廳의 6도 57貢 중에서 16貢, 賑恤 常平 均役 3廳의 17貢 중 7貢 등 도합 23貢을 공계인이 담당하였다. 별공(別貢)은 원공 부족량을 관부에서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 역시 공계인이 담당하였다. 이외

에도 歲幣, 方物도 공계인이 담당하였다.

공인 자본은 크게 다음의 4으로 나누인다.

종류 1: 貢人 (일반 공물주인, 공계인)

보부상과 같이 관부와 궁부의 수요물자를 독점 공급하고 상업특전, 관세, 시장세 등의 징수권을 받았던 상인 조직.

종류 2: 塵人貢人 - 시전 상인의 신분을 지닌채, 공인의 직업을 겸함.

工匠 - 工曹 隸屬의 신분을 지닌 채, 準貢人적인 성격을 띤 자.

종류 3: 京主人

종류 4: 其人 - 관부 및 왕실 수용의 燒木과 炭木을 청부상납하는 商賈. 대동법 이전에는 鄉吏 身分 - 자기 자본이 많은 富商으로서 정부와 왕실에 땀감 등을 상납했고,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상품을 시전과 객주 및 여각에 위탁판매했던 상인조직.

이 중에서 외공장, 또는 유품각전을 담당했던 도고 상인 중에 공인 자본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성군에도 이와 같은 공인 자본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 3절 근대

제 1항 시장 현황

고성군의 시장은 1호시장이 1924년에 처음 개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류면의 당동시장이 1호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시장 등록을 하였다. 규모는 부지 750평, 건평 168평, 목조아연층 구조의 점포 54개, 상수고 1개, 공동화장실 1개소를 갖고 있다. 일제는 강점 후에 시장조사사업을 1913년-1917년에 실시하고, 1914년에 총독부령 제 136호로 시장규칙을 반포하여 시장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1호시장은 정기시장, 가축시장, 땀나무시장, 역령시 등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묶은 것이고, 2호시장(일본인 공설시장), 3호시장(농수산물 도매시장), 4호시장(상품거래소와 증시)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고성에는 1호시장만 존재하였고, 2-4호시장은 없었다. 고성에는 4개의 시장이, 284회 개시하였다고 1922년에 기록되어 있다. 개당 71회 개장한 것으로 보아, 5일장으로 추정되며, 1924년에 1호시장이 최초로 허가된 것으로 보아, 공인되지 않은 시장으로 추정한다(경상남도, 1922, [道勢一

斑]: 110).

1920년대 중반의 시장을 기록한 자료에는 당시의 시장일반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있다 (조선 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연구자료 19집): 243). “시장은 대개 군마다 4-5개소에서 10개 내외가 있으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수백 인에서 수천인에 달하기도 한다. 가을 수확 후에 시장에 많이 몰리며, 봄여름에는 한산한 편이다.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인근의 3-4리에서 7-8리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상인들은 인근의 생산자이거나 시장을 순회하며, 행상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20만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145개소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거래량은 한국 (남북한을 합)의 거래량의 66%를 차지한다. 연간 50만원 이상 거래되는 큰 시장은 경남에서는 통영시장, 통영어시장, 하동면 읍내 시장, 거창면 읍내시장 등 4곳이다 (부산 제외).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도는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에 비해 시장의 발달이 더딘 상황이다” . 1920년대에는 경상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이 발달이 더딘 상황이나, 통영, 하동, 거창은 발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고성군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디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상대적으로 고성군의 시장은 통영에 통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41, [통영상공회의소 연혁사]).

1928년에 하일면에 임포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아마도 1호시장으로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장은 어패류 상인 중심이며, 매월 3, 8일에 개장하였다. 규모는 부지 505평, 건평 30평, 목조아연층 구조의 점포 14개, 상수도 1개, 공동화장실 2개소였다(1939년, [慶尙南道 道勢概覽]).

제 2항 해방이후 시장 현황

[표 3] 고성군 유통업체 현황, 1987년

	상설시장	정기시장	연쇄화사업
1987년	-	6	1

자료: 고성군, 1993 32회 통계연보

[표 4] 고성군 시장 개설 현황

개설연도	장소	상인수	개장일
1954년	영오면 영오시장, 또는 영산시장(영산리)	종합상인 50여명	매월 2, 7일 개장, 부지 395평, 건평 80평, 목조 아연즙(목조 스테트장옥) 점포 60개, 상수도 2개소, 화장실 2개소, 오물처리장 1개소
1958년	동해면 대천시장	어패류 상인	매월 5, 10일 개설, 부지 440평, 건평 44평, 목조아연즙 구조의 점포 30개, 상수도 1개, 공동화장실 1개소
1965년	회화면 배둔시장		매월 4, 9일 개설, 상설시장화 (1995년에 기록)
1989년	고성시장		부지 906평, 건평 232평, 목조아연즙 구조의 점포 226개, 상수도 1개, 공동화장실 1개, 오물처리장 1개소, 소방시설, 419개 점포 상설 및 정기(1,6일)

자료: 경상남도 고성군, 2010, [2010 군정백서]

주: 각 시장의 현황은 개설 당시의 현황이고, 현재는 대부분 감소 추세에 있다.

해방이후 16년간 일제가 총독부령으로 1914년에 발표한 시장 규칙을 그대로 승계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1961년에 市場法을 공포(법률 704호)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구분하였다.

- 1호시장 - 상설시장 (도에서 허가하여, 공익법인이나 지자체가 개설)
- 2호시장 - 정기시장과 계절시장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 3호시장 - 백화점 등 대형점포

이후 1981년에 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설시장은 도매와 소매(일반소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를 구분하고, 정기시장에 연쇄화사업을 추가하였다. 1960년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安井場이 설립되었으나, 도로가 생긴 후로 固城場 등 인근 시장과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1981년에 폐쇄하였다.

1986년에는 시장법을 폐지하고, 도소매업 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제 3항 특산물

1910년 이후 고성 지역의 특산물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령토, 桐(오동나무), 鱈(대구 설 -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구의미의 한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차산물 중심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시기 내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22년의 시장현황에 고성군은 등장하지 않는다.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순서로 여전히 일차산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연간 매매고, 농산물 70,623원, 수산물 29,529원, 織物 5,328원, 畜類 37,568원, 기타잡품 15,526원, 합계 158,574원”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110)

[표 5] 경남도 시장 현황

지역	취급품	비고
마산시장	수산물	
진주	농산물	
창녕	잡화	
밀양	농산물	
창원	수산물	
통영	농산물, 수산물, 직물, 잡화 (하동 다음으로 큰 시장),	
하동	농산물, 수산물, 직물, 수산물, 잡화(가장 큰 시장)	
거창	농산물, 직물, 축류, 잡화	
합천	축산물	

자료: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110

1호 시장 즉, 재래시장은 1923년 현재 남북한 합쳐서, 1233개, 전체 거래액은 119,471천원이다. 품목별 거래액의 내역은 농산물이 32,697천원, 수산물이 18,302천원, 직물이 18,693천원, 축류가 29,033천원, 잡화가 20,743천원이다(조선 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연구자료 19집): 241). 따라서 경남 전체와 비교하면, 경남은 상대적으로 잡화와 직물과 같은 공산품의 거래가 적고, 일차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성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데, 전국적인 거래 추세와 비교하면, 고성 지역은 농산

물과 수산물, 축류의 거래가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직물과 잡화가 거래가 적은 편이다(조선 총독부, 1927: 241).

제 4절 1990년대 이후

1997년 도소매진흥법을 폐지,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 공포. 대규모 점포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제도로 전환.

제 1항 시장현황

[표 6] 고성군 유통업체 현황

	상설시장	정기시장	연쇄화사업
1992년	1	5	1
1995년	1	6	
1999년	1	3	5

자료: 고성군, 1993 32회 통계연보; 경상남도, 1997년 1월 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95년말기준]

[표 7] 시장 현황, 1999년

시장 명	시장 종류	점포수	비 고
고성시장	상설	12개동, 279개 점포.	1, 6일 정기도 병존 현대화 추진
배둔시장	정기(4,9일)	2개, 80개	1996년에 완공한 노인 복지시설 완공, “영 오, 개천, 영현, 진주 시 금곡면의 1만여 명 의 시장이용객”
영오시장	정기(2,7일)	1개, 28개	
당동시장(거류면)	정기(3,8일)	7개동, 31개 점포	
대천시장	정기(5,10일)		

자료: 고성군, 1999, 군정백서

제 2항 도소매 업체현황

[표 8] 도소매업 현황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종사자 수
1999년	1,397개	2,445명
2006	1,012	2,487
2007	966	1,968(남 949명, 여 1,019명) 자동차 및 부품 판매 24개 51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18개 465명 소매업 (자동차 제외) 824개 1,452명

자료: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소상공인 지원센터, 2000, [장사목을 잡아주는 길잡이, 경남주요지역 상권분석: 고성군]; 고성군, 2008, [2007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9] 도소매 업종별 분호, 2000년

업종	업체수	소분류
소매업	305개	의류 71개, 잡화 48개, 수피 21개, 화장품 16개, 보석상 13개, 스포츠용품 12개, 인테리어 12개
음식점	137개	한식 59개, 분식 24개, 갈비집 13개, 횃집 8개, 치킨 8집, 중식 8집, 경양식집 8집
주점	48개	일반주점 10개, 실비집 7개, 소주방 6개, 나이트 5개, 호프 5개, 단란주점 4개, 가요주점 3개.
문화오락	40개	오락실 10개, PV 방 8개, 당구장 7개, 노래방 6개, 기원 3개
제조업	40개	사진 9개, 방앗간 6개, 인쇄 4개, 샷시 4개, 양장 4개, 양복 2개, 표구 2개, 한복 1개
다과점	38개	다방 29개, 제과점 5개, 커피 전문점 4개소
미용 건강업	32개	미용실 23개, 이용원 6개, 목욕탕 2개
보건업	36개	약국 9개, 한약방 4개, 치과 4개, 한의원 3개, 일반의원 3개, 가축병원 2개, 내과 1개
자동차 관련업	16개	오토바이 5개, 카센터 5개, 자동차 판매 3개, 주차장 2개, 주유소 1개

제 3항 지역별 특성

[표 10] 군내 지역별 도소매업 변화

	2010년		1999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성읍	635개	1,375명	643개	1,335명
회화면	92	162	104	191
거류면	46	87	45	70
영오면	30	53	9	18
하이면	27	53	28	50
동해면	27	43	28	114
마암면	15	36	17	43
하일면	14	28	18	26
상리면	14	26	14	29
개천면	9	13	12	18
영현면	8	18	5	10
삼산면	6	23	8	13
대가면	5	23	3	5
구만면	4	5	4	5
합계	932개		1,945명	

자료: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소상공인 지원센터, 2000, [장사목을 잡아주는 길잡이, 경남주요지역 상권분석: 고성군]

[표 11] 지역별 업종현황

지역	점포수	업종 분포
고성읍 사무소 주변	104개	소매업 38%(의류점 8개), 음식업11%(한식 3개, 레스토랑 3개), 주점 8%(호프 3개), 다과점 8%(다방 5개), 문화오락 6%(노래방 2개), 미용건강 5%(미용실 3개), 제조업 5%(사진 2개)
고성군청 주변	214개	소매업 29%(의류점 24개), 음식업 17%(한식점 18개), 주점 7%(실비집 3개, 가요주점 3개, 단란주점 3개), 문화오락 7%(당구장 4개, 오락실 4개), 다과점 6%(다방 11개), 제조업 5%(사진업 5개)
고성읍 구시장과 새시장주변	426개	소매업 42%(잡화점 45개), 음식업 17%(한식 27개), 주점 5%(일반주점 7개), 보건 5%(약국 6개)
고성읍 2호광장과 터미널 주변	113개	소매업 21%(건축자재 5개), 음식점 16%(한식 11개), 자동차관련업 11%(카센터 5개), 제조업 8%(방앗간 3개), 문화오락 7%(PC 방 3개, 오락실 3개)
배둔지역 (터미널에서 시장주변)	167개	소매업 26%(수퍼 7개), 음식점 20%(한식 14개), 문화오락 8%(PC 방 3개, 당구장 3개, 노래방 3개, 낚시점 3개), 주점 7%(노래주점 3개, 소주방 3개)
하이면	82개	한식/한정식 13개, 횃집 6개, 음식 분식 5개, 주유소 5개, 건설 4개
개천면	45개	식당 (중화 포함) 9개, 가든 6개, 여관 4개, 잡화 4개,
마암면	35개	회집 6개, 식당 5개, 중기 3개 (?), 주유소(충전소 포함) 3개,
양오면	82개	식당 (갈비 포함) 9개, 잡화 6개, 통닭 3개, 약방 3개, 가축병원 3개, 건재철물 3개, 농약 3개

자료: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소상공인 지원센터, 2000, [장사목을 잡아주는 길잡이, 경남주요지역 상권분석: 고성군]의 조사자료.

[표 12] 고성군의 지역별 업종 분포

지역	업체수	종업원수	업종별
고성읍	643개	1,335명	음식료 담배 도매 28개 108명, 종합소매 68개 176명, 음식료 담배 소매 118개, 164명, 섬유의복신발 가족소매 99개 126명, 기타 가정용품 소매 74개 124명, 기타상품 전문 소매 80개 139명
삼산면	8개	13명	종합소매 4개 5명, 연료 소매 2개 5명)
하일면	18개	26명	종합소매 11개 13명, 음식료 담배 소매 4개 6명
하이면	28개	50명	종합소매 14개 23명, 연료소매 5개 11명
상리면	14개	29명	종합소매 4개 7명, 연료소매 7개 17명
대가면	3개	5명	
영현면	5개	10명	종합소매 3개 6명
영오면	9개	18명	기타 전문도매 8개 16명, 종합소매 4개 8명, 음식료 담배 소매 6개 9명, 섬유의복가족제품소매 6개 6명, 기타 가정용품 소매 6개 9명
개천면	12개	18명	종합소매 8개 10명
구만면	4개	5명	
회화면	104개	191명	산업용농축산 산동물도매 8개 19명, 종합도매 19개 41명, 음식료 담배 소매 22개 31명, 섬유의복가족제품 소매 9개 11명, 기타가정용품 소매 10개 16명, 연료 소매 6개 16명, 기타상품 전문 소매 14개 24명
마암면	17개	43명	종합소매 5개 9명, 연료 소매 6개 26명
통해면	28개	114명	음식료 담배 도매 2개 83명, 종합소매 11개 13명, 음식료담배소매 13개 15명
거류면	45개	70명	종합소매 17개 29명, 기타 가정용품 소매 4개 10명

자료: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소상공인 지원센터, 2000, [장사목을 잡아주는 길잡이, 경남주요지역 상권분석: 고성군]에 수록된 통계청자료.